

20세기 전환기의 '아방가르드' 예술집단의 근대 '보편주의' 사상-표현에 관한 연구

-근대 예술적 자각을 향한 지적 융합, 보편철학의 발전적 전개-

오 장 환

(부경대 건축학부 조교수)

주제어 : 조월주의, 신지학, 보편 철학, 예술적 자각

1. 서론

역사적으로 '근대(modern)'라는 용어는, 과거 후기 라틴어에서 이전 로마의 이교적 시대와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되기 시작했던 용어로서, '요사이'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시대를 지나면서 점차 이 의미는 과거 전통의 굴레에서 신성화되지 않은 모든 '새로운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확대 사용되어졌는데, 사실 이와 같은 사고의 바탕에는 새로이 등장한 모든 현상들을 '진보(progress)'로 바라보는 믿음이 내포되어 있었다. 더욱이 20세기 전환기의 '근대'라는 인식은 이전 산업혁명이 가져다준 기술적 진보와 더불어 민주주의로 대변되는 사회적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이러한 사고의 근저에는, 즉 서양의 지성사적 역사에서, 그 이전의 어떤 시대와도 비견하기 어려울 정도의 변화된 생각, 즉 '창조적 진화(進化)'라는 새로운 자각이 널리 인식되고 있었다.

사실, 창조적 진화라는 인식은 이미 20세기에 접어들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시작된 것으로, 이러한 변화들은 결국 예술분야에서의 창조성의 개념 또한 변형시켰다. 19세기 전환기에 콜리지(Coleridge)가 예술이 창조행위의 반

복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예술 형식에 대한 다원적인 개념과 더불어, 한마디로, 과거에는 미 없이는 예술도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 창조성 없이는 예술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바뀐 것이고, 이러한 생각은 단적으로 예술에 대한 근대의 주관주의 등장과 그 우위와 승리로 설명되는 것들이다. 이렇듯 근대적 '창조성'으로 인식은 독일의 '자연철학(Naturphilosophie)'과 더불어 미학에서의 신은 진보하는 현상이며 '창조하는 진화(進化)'의 형태라고 보았던 것이었고, 이러한 사상은 이미 낭만주의 셸링의 예술철학에서 등장했다.

중요한 사실은, 벌린(I. Berlin)이 설명하듯, 서구 지성사의 변화 속에서 낭만주의가 실제 서구인들의 의식에 일어난 단일한 변화로서 가장 거대한 것이었는데, 왜냐하면 낭만주의는 서구세계의 삶과 사고를 근본적으로 바꾼 가장 광범위한 근대 운동으로, 19세기와 20세기에 일어난 다른 모든 변화들은 적어도 이 운동에 깊이 영향을 받았다고 널리 인식되기 때문이다.

주목할 것은, 20세기의 '추상' 내지 '순수성' 형태로의 예술로 나타나기까지 많은 예술에는 급격한 변화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예술가집단의 표현의 급격한 변화들이 그러한 사상적 변

화들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며, 더욱이 이러한 변화는 건축예술과 관련하여서도 별개의 것으로 취급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건축에서 ‘근대성’이라는 새로운 표현의 패러다임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한 주요한 아방가르드 예술단체들, 즉 러시아 절대주의(1913), 네덜란드 데 스틸(1917), 그리고 독일 바우하우스(1919) 창립의 주요 인물들, 예를 들어 말레비치, 몬드리안, 칸딘스키 등은 하나 같이 순수예술가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순수회화로부터 시작된 미학적 이상을 궁극적으로 건축으로까지 이식, 발전시켜 근대 ‘순수성’의 건축예술의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선구자들로서, 그 역할이 건축이론과 디자인교육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미학적 패러다임의 최종의 종착지로서의 건축을 포함하는 예술표현에 대한 고찰에 앞서, 20세기 전환기의 ‘아방가르드’ 순수예술집단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예술적 자각은 무엇이었고, 또한 이러한 지적 자각이 어떠한 사상적 근원으로부터 출발된 것인지를 먼저 고찰하고자 한다. 이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숨겨진 것은, 그것이 또한 그의 종교이건 또는 그렇지 않건, 그의 철학이다. ... 아주 뛰어난 예술가는 대개 그것을 숨길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의 억제할 수 없는 충동이 그것을 말하고 말게 하며, 심지어 그가 그것을 감추려고 할 때도 그것을 말하게 된다.”라고 헤겔이 주장한 것처럼, 자각 없는 예술적 표현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서구의 지성사적 변화에서 근대성으로 향하는, 과거와는 다른 변화의 주요한 내용에 주목해야 하는 필요성과 당위성이 바로 여기 있으며, 따라서 건축을 포함하는 근대예술의 ‘추상성’ 내지 형태의 ‘순수성’의 현상과 탐구로 어떻게 전이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근원적 동인(動因)을 이해함으로써 근본적으로 ‘근대성(modernity)’에 대한 지평을 넓이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20세기 전환기의 ‘생성(becoming)’으로 표현되는 커다란 미학의 변화에 사상적 뿌리를 갖는 낭만주의 사상을 중심으로,¹⁾ 근대 보편사상의 역사철학적 계보를 고찰하고 그 내용의 발전적 전개가 어떻게 근대성의 특징이 되었는지를 탐구하고자 한다. 특히, 20세기 ‘추상’으로서의 획기적인 예술표현의 변화가 나타나기 이전부터 등장하여 실제 예술의 근저에 자리 잡힌 종교철학으로서, 19세기말 초월주의와 신지학과 같은 소위 ‘보편주의(Universalism)’ 사상에 관해 조명코자 한다. 왜냐하면, 실제 신지학이 근대 예술운동에 상당한 충격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²⁾ 이러한 중요한 사실이 칸딘스키, 몬드리안 등이 신지학과 관련성이 있었다는 정도로 간단히 언급되고 있고, 더욱이 건축분야에서도 F. L. 라이트와 초월주의와의 관련성 정도만 논의되는 상황으로 충분히 인식되지 못했다. 한마디로, 신지학과 초월주의를 포함하여 서구에 광범위하게 퍼져 당시 적잖은 중요한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보편철학’과의 관련성과 그 영향은 거의 연구되지 않은 상황이다.

2. 본론

2-1. 낭만주의 자연-예술사상의 전개

예술에 있어서 과거와 현재의 예술을 구분 짓는 커다란 분기점이 있었다. 주지하듯이, 그

1) 낭만주의는 국가에 따라 상당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고 사상사적 위치도 애매모호했지만, 적어도 19세기와 20세기의 시대정신의 일반적 전제를 이전 시대의 전제와 구분시켰음이 인정되고 있다. F. Baumer, 조호연譯, 유럽 근현대 지성사, p.380.

2) J. Clarke, Oriental Enlightenment, p.90. 참조할 것.

것은 바로 소위 '추상' 내지 '순수성'의 근대 예술이 나타나기 훨씬 이전, 즉 18세기에 커다란 전환으로 설명되는 주관주의의 승리가 그것이다. 사실, 이러한 변화들은 독창적인 미학자 빙켈만이 '고귀한 단순함과 고요한 위대함'이라는 표현 속에서 드러난 것이었는데,³⁾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러한 빙켈만의 논지가 모든 고대인들이 고귀한 단순성을 지녔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마땅히 되어야 할 이상적인 개념이라고 본 것이다. 한마디로, 새로운 예술이론을 위한 칸트의 기여는 그의 동시대인들에게 근본적인 영향을 주었고,⁴⁾ 결국 18세기 후반부터 서양예술에서는 모방적 재현에 별관 관심을 두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림을 그리는 목적이란 바로 자연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탐구하는 정신, 또는 영혼을 담기 위함이고, 그렇게 자연은 아름다움과 완전함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믿었기⁵⁾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듯 인식의 전환을 이룬 '계몽'사상은 이후 보편주의 사상과도 무관하지 않았다.⁶⁾

계몽주의 미학의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는 이후 낭만주의에도 지속된다. 예를 들어, 낭만주의의 가장 위대한 선구자이고, 위대한 전령이자 예언자라고 일컬어지는 슐레겔은 "신성함은 파악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3) W. Tatarkiewicz, 손효주譯, 미학의 기본개념사, pp.243-264. 역사적으로는 미에 대한 고전주의의 특징적 해석인 객관주의적 이론이 우세했지만, 근대에는 낭만주의적 해석인 주관주의 이론이 등장, 이후 그 우위를 점할 수 있었고, 더욱이 20세기로 전환되는 시기에는 미를 전적으로 심리적 현상으로 취급하는 흐름이 있었다.

4) Schlegel과 Goethe, Hegel, Schelling, Coleridge, Wordsworth는 모두 칸트의 사유에 의하여 자신들의 예술관을 형성했다. <Ibid., pp.287-289.>

5) I. Berlin, op. cit., p.51.

6) 19세기말 신지학 협회를 창설한 블라바츠키의 신지학 사상은 이미 18세기의 회의적 계몽주의에 빚진 것이라고 설명되고 있다. <J. Godwin, The Theosophical Enlightenment, p.xi.> 참조할 것.

“그렇지 않다. 신성함은 결코 파악될 수 없으니, 그것은 단지 형상을 부여하기만 해도 모습을 바꾸어 버린다.”고 했지만, 중국에는 예술은 자연과 같이 형성된다는 결론을 이끌어 냈다.⁷⁾ 사실, 낭만주의는 역사적으로 보면 플로티노스에 의해 플라톤주의가 변용된 것이었다. 왜냐하면, 서양 사상사에서 플로티노스를 중심으로 하여 완성된 신플라톤주의 철학에⁸⁾ 의해 그리스의 고전주의와 대립하는 하나의 세계관이 형성되었고, 낭만주의로 직접 이어지는 사상적 계보로서 그 배후에는 신플라톤주의⁹⁾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러한 신플라톤주의는 19세기에 R.테일러에 의해 소개되었으며 그와 같은 신지자(theosoper)¹⁰⁾들에게는 그와 같은 신학적 종합에 대한 노력을 이해하는 것이 장점을 주었다.¹¹⁾

서구사상의 형성에 이렇듯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해온 신플라톤주의에 대해, 비록 일부 근세독일 철학자들이 이를 '비합리적 공상 내지 신비적 몽상'이라고 비판적 태도를 취하기도 했지만, 헤겔은 플로티노스를 위시한 신플라톤

7) I. Berlin, op. cit., p.169에서 재인용., Schlegel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플라톤주의가 되든지 아니면 아리스토텔레스주의가 된다고 했는데, 그는 서양정신사를 통해 면면히 내려오는 신비주의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있었다. <전광식, 신플라톤주의의 역사, p.7.>

8) Plotinos에 Proklos를 중심으로 한 신플라톤주의는 플라톤주의뿐만 아니라 상호간에 종종 대립해온 아리스토텔레스주의의 어떤 요소들마저 어느 정도 수렴해 왔고, 물론 피타고라스사상과 스토아사상도 선별적으로 도입하였고, 철학의 경계를 벗어나 헬라종교와 동방종교 또한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전광식, op. cit., p.7.>

9) 전광식, op. cit., p.8. 신플라톤주의의 체계는, 간단히 설명하면, 아르키메데스 점인 초월적 일자(一者)에서 출발하여 잠시 땅의 세계로 내려왔다가 다시금 그 하늘의 세계로 되돌아가는 구도로 되어 있다.

10) 19세기말 신지학 협회가 창설되기 이전부터 역사적으로 J. Boehme와 그의 추종자들처럼 '신성함에 대한 지혜'를 추구하는 기독교 비교주의, 혹은 신비주의 기독교도를 '신지자(theosoper)'라고 불렀는데, 이는 그들에 의해 종교적 계몽의 전통을 언급하는 것이었다. <J. Godwin, op. cit., pp.xii, 228.> 참조.

11) J. Godwin, op. cit., p.26.

주의 철학자들의 사상을 이런 평가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무던히 노력했었다. 예를 들어, 헤겔은 ‘정신을 초자연적인 것으로 고양시키는 모든 시도’를 몽상이라고 칭한다면, 그 때 우리는 신플라톤주의자들뿐 아니라 플라톤 및 아리스토텔레스 철학도 함께 몽상이라고 칭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주장하기를, “플로티노스 철학의 원리는 그 스스로 있고, 그리고 그 스스로를 위해 있는 이성(Vernunft)이다”라고¹²⁾ 했다. 사실, 헤겔은 플로티노스보다 프로클로스 사상을 더 발전시킨 것으로 여겨지는데,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 프로클로스의 탁월함이란 바로 ‘플라톤적 변증법에 대한 심오한 연구’였기 때문이다. 비록 프로클로스의 변증법에는 부정의 원리가¹³⁾ 놓여 있지만, 헤겔은 이러한 사상에서 개별자들의 자기 인식에 대한 분명한 긍정적 의미부여를 하고 있으며, 한마디로 프로클로스적인 일자론(一者論)은¹⁴⁾ 헤겔에게 있어 동양을 포함하는¹⁵⁾ 모든 고대 변증법의 완성이었다.¹⁶⁾

12) 전광식, op. cit., pp.249-251.

13) 부정의 원리, 그 자체에는 불가언적(不可言的)이고 불가지적(不可知的)인 일자라도 자기의 진행과 회귀의 과정에 따라서는 포착되어질 수 있다. 말하자면 일자가 자기 본질의 은닉성과 불가지성을 지양하고 자기나 누기를 하는 것이 곧 일자의 자기 발현 내지 진행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부정의 원리는 단순성과 대립되는 것이며 생산적이고 활동적인 것이다. 그러면서도 단일성 내지 통일성은 이러한 진행을 통해서도 감축되거나 감소되지 않는다. 일자는 다양성으로, 다양성은 일자로 제시되고, 다양성 내지 모든 차별은 단일성으로 소급된다. <전광식, op. cit., p.254 참조.>

14) Ibid., p.256. 헤겔이 말하는 정신의 자기전개의 세 단계는 논리학과 자연철학, 정신철학인데, 이는 프로클로스의 실체(ουσια)-타자성(ετεροτης)-자기정체성(ταυτοτης)에 해당하는 정신의 존재방식을 가리킨다. 따라서 헤겔은 절대정신을 중심으로 한 자신의 체계수립에 좋은 전형을 프로클로스의 사상 속에서 발견했다.

15) 헤겔의 공헌은 보편사상의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더 크고 포괄적인 기여를 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헤겔은 중국과 인도철학을 단일한 전체성(a single totality), 즉 세계정신(the world-spirit) 전개(unfolding)의 한 부분으로 인간성의 발전과정 속에 그것들을 종속시켰고, 그렇게 보려고 했기 때문이다. <J. Clarke, op. cit., p.66.>

건축역사연구 제17권 6호 통권61호 2008년 12월

결과적으로, 계몽주의 시대부터 서양의 근대적 지성들은 변화된 우주론적, 존재론적 인식을 갖게 되었고, 따라서 예술에 있어서도, 빙켈만이 그랬던 것처럼, 화가와 조각가들은 수학자들처럼 이상적인 형상을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즉 예술가들은 그것을 통해 우리를 자극하여 그 이상을 닮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자연의 내적 목적과 실재를 드러내 보인다고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실재, 생명, 자연, 이상, 이것들은 이 시대의 사상가들에게 동일한 의미였기¹⁷⁾ 때문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낭만주의 사상가들에게 ‘자연(自然)’은¹⁸⁾ 생명을 의미했는데, 여기서의 ‘생명’이란 흔히 보게 되는 그런 종류, 즉 소산적 자연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향해 간다고 여기는 것으로, 모든 생명이 지향하는 어떤 이상적인 형태였다. 따라서 가장 뛰어난 예술적 재능은 자연과 인간이 지향하는 내면의 객관적인 이상을 시각화하여 그것을 훌륭한 그림으로 구현하는데 있었다. 즉 어떤 종류의 보편적인 패턴이 존재하며, 화가는 이것을 이미지로 구현할 수 있으니, 이는 바로 철학자나 과학자가 이를 명제로 구현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¹⁹⁾ 했다.

한마디로, 이러한 사상은 독일의 미학이나 예술철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핵심적 내용일 뿐만 아니라 근대 예술에까지 이어져오는 중요한 내용이다. 즉 자연만물에 생명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 인간이 자연의 가장 자각적인 대표자에 지나지 않는다면, 예술가의 임무란 자신의 내부를 탐색하여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16) Ibid., pp.252-255.

17) I. Berlin, op. cit., pp.51-52.

18) ‘자연(nature)’이라는 용어는 지금 ‘창조적(creative)’이라는 용어가 그렇듯이, 아주 널리 쓰였으며, 이와 거의 유사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Ibid., p.44.>

19) I. Berlin, op. cit., pp.48-49. 이 시대의 공식적인 독트린은 ‘자연(Nature)’ 그 자체에서 ‘질서(Order)’를 발견한다는 것이었다.

내부에서 움직이는 어둡고 무의식적인 힘들을 탐색하여, 이것을 가장 고통스럽고 격렬한 내적 투쟁을 통해 의식의 세계로 끄집어내는 것이라는 점인데, 실제 이것은 셸링의 예술 사상이었다. 셸링에게 신은 이른바 의식이 자기를 전개하는 원리에 다름 아닌데, 즉 신이야말로 알파와 오메가, 곧 시작과 끝이라고 그는 말했다.²⁰⁾ 따라서 신은 진보하는 현상이며 '창조하는 진화(進化)'의 형태라고 보았다.²¹⁾

즉, 예술철학²²⁾으로 대표되는 셸링에게서 가장 분명히 파악되는 일자(一者)로 표현되는 일원론적 관점 또한, 역사적으로 신플라톤주의의 단일성 내지 통일성의 이념으로, 파르메니데스와 플라톤에게서 발원하여 플로티노스와 프로클레스에게서 확립되었고, 그 후 브루노와 스피노자를 거쳐 전-단일성(All-Einheit)을 내세운 셸링에게 내려왔다. 셸링의 절대자(das Absolute) 개념은 그것을 가리킨다.²³⁾ 예를 들어, 세계 속에서의 대립들, 즉 이론과 실천, 자연과 정신, 개별과 보편, 주관과 객관, 자유와 필연, 존재와 사유 등의 대립들은 통일되어야 하며, 더욱이 이런 이원론적 대립은 동일성을 통하지 않고서는 극복될 수 없다고 보았는데 셸링철학을 통틀어 이와 같은 이원론의 극복이 셸링 철학의 궁극목적이라 할 수 있다.²⁴⁾ 그리고 그러한 동일성의 완성은 전체 속에서만 가능한데, 그는 "개별적인 부분들은 단지 전체의 이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²⁵⁾ 하면서 전체

가 부분에 앞선다고 했다.

2-2. 낭만주의 예술-교육사상의 등장

낭만주의 자연철학의 '통일적' 관념사상도 주목할 것이지만, 이러한 낭만주의 사상과 예술과의 영향관계를 고려할 때 19세기에 등장한 낭만주의 교육사상의 등장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자연의 통일의 법칙을 '순수'조형을 통해 가르쳤던 프뢰벨교육혁명이 근대예술의 뿌리에 미친 영향에 대해, N. 브로스터만의 주장처럼, 거의 드러나지 않아 주목받지 못했기 때문인데, 즉 프뢰벨에 대한 고찰은 근대 '순수' 혹은 '추상'의 새로운 재현으로의 전이과정을 탐구하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러한 낭만주의적 근대 교육사상인 프뢰벨의 교육이론과 교육시스템이 바로 앞에서 논의했던 뵘메, 브루노, 셸링 등의 영향으로 창안되었다는²⁶⁾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는 신지학과 공통된 사상적 뿌리를 가지는 19세기 보편주의 사상의 하나라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앞서서도 언급하였듯이 J.뵘메와 더불어 G.브루노의 사상은 이후 19세기 신지학 협회의 창설 이전에 그를 추종하는 신지학자들과 이후 신지학자(theosophist)라고 불렀던 비교(秘敎)주의 신학자들을 고무시켰던 사상이었기²⁷⁾ 때문이다.

1801, S.624.> 재인용.

26) 프뢰벨은 자기의 자서전에서, "언어연구, 말과 언어 비교, 등에 대한 학습은 이제 내 일의 목적이 되었다. 동양 언어에 대한 연구는 나에게 분수령처럼 생각되는데, 그 곳으로 나의 탐구는 이끌려갔고, 곧 나는 옛 헤브루와 아라비아말로 착수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것들을 통해 또 다른 아시아의 언어들, 특히 인도 말과 페르시아 말에 이르는 길로의 어렵פות한 개안을 갖게 되었다. 내가 이러한 언어들 연구에 대해 듣게 되었던 것들, 즉 페르시아와 독일간의 관계에 대한 인식에 의해 나는 아주 강하게 자극, 매혹되었다."라고 했는데, <Froebel, Autobiography of F. Froebel, p.40.> 여기서 언급된 동양이란 중세 신비주의자 뵘메와 더불어, 예나 대학시절 탐독하게 된 페르시아의 젠드아베스타(Zend Avesta), 즉 조로아스터교의 성서였다. <K. Leeb-Lunberg, F. Froebel's Mathematics for the Kindergarten, p.25.>

건축역사연구 제17권 6호 통권61호 2008년 12월

20) 여기서 알파는 무의식의 상태이고, 오메가는 자신에 대한 충만한 의식에 이른 상태이다.

21) I. Berlin, op. cit., p.160.

22) N.하르트만은 셸링철학을 1)자연철학, 2)선형적 관념론, 3)동일철학, 4)자유철학, 5)후기 종교철학으로 나누고, 선형적 관념론과 동일철학 시기를 예술철학 시기로 본다. 이미 이때 자연세계와 정신세계의 종합통일이 예술에서 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Ibid., pp.12-13.>

23) 전광식, op. cit., p.251.

24) 김혜숙, 셸링의 예술철학, pp.12-17.

25) Ibid., p.12에서 <F. Schelling, Schriften von 1799-

프뢰벨은 설명하기를, “그러므로 자연 속에서의 변화와 다양성이 궁극적 원인에 있어 다수- 즉 신들이 다수(多數) -라는 추론을 정당화해서도 안 되며, 그렇다고 신의 일치가 자연에서의 최종적 일이라는 추론을 정당화해서도 안 된다, 즉 이 둘 모두의 경우에 있어, 역으로 자연의 다양성으로부터 그 궁극적 원인들이 하나라는 것을 그리고 신의 통일성으로부터 자연의 성장 속에서 영원히 진행되는 다양성이라는 것이 추측되어야 한다.”라고²⁸⁾ 했는데, 한마디로 이는 셸링과 같은 낭만주의 자연철학의 일원론적 관점이다. 프뢰벨은 이어 설명하기를, “모든 사물과 모든 존재, 이 모든 것은 그러나 그것이 이러한 반대의 성질을 갖는 것과 연관된 것으로서, 그리고 통일체(unity)로서 여겨지게 되며, 그것은 이러한 상반되는 것들과의 일치(agreement)”라고 하면서, 그는 모든 발전에 대해, “여기서 (-)는 고정되거나 일정한 것을, (+)는 흐르거나 변화하는 요소를, 그리고 (±)는 이 둘의 결합”이다”라고²⁹⁾ 했다. 또한 프뢰벨은 ‘모든 발전의 보편적 법칙(the universal laws of all development)’에 대해 설명하기를, “이러한 발전의 법칙을 하나의 공식으로 놓으면, 즉 진정한 종합은 명제(正)와 그 정반대, 반대명제(反)로부터의 나온 것이다.”라고³⁰⁾ 했다.

사실 이러한 법칙은 피히테와 헤겔에게 사용된 관념론적 구성의 법칙과 변증법적 방법론에서 사용된 사고의 법칙이었다. 이러한 비교에 대해 프뢰벨은 “이는 그것들 둘 모두이다. 그러나 아직 그것들의 어느 것보다도 공통된 것을 갖지 않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자연에 대한 묵상

(默想)이 나를 가르쳐온 것이고, 내가 성장과정에서 있는 어린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그들에게 내놓은 법칙이다.”라고³¹⁾ 했다. 그리고 <인간교육>, ‘그리기(Drawing)’란 제목으로 그는 설명하기를, “새로운 형태, 그리고 형태에 의지하는 무엇이든 그것은 내부 정신 에너지(inner spiritual energy)를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낸다. 이러한 내부의 힘을 인식하는 것은 인간 운명의 한 부분이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자신, 자신과 주변과의 관계, 그리고 궁극적으로 절대적 존재(absolute being)에 대해 알게 된다. ... 그리고 (수직과 수평의) 직각관계가 형태-인식의 발달을 돕기 때문에, 학습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이러한 관계들의 외적 표현과 형태의 표현은 바로 인간의 본성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또한 이것이 교육의 주제이다.”³²⁾라고 했다.

사실 프뢰벨의 교육사상이 중요한 것은, 프뢰벨이 이러한 모든 발전의 법칙을 설명하면서, 그의 교육적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그는 말하기를, “나의 과제는 인간의 진정한 휴머니티를 사람들에게, 즉 ‘모든 발전의 우주 법칙’에 따라, 그의 절대적 존재를 사람들에게 교육시키는 것이다.”라고³³⁾ 했다. 이처럼 프뢰벨이 낭만주의 자연철학의 관념적 사상을 실천학문으로서의 교육으로 옮겨 이러한 원리를 가르쳤다는 것만으로도 그의 업적은 커다란 의미를 부여받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근대교육사상이 그대로 20세기 전환기의 근대예술을 형성하는데, 단지 이념적 관념으로서 그친 것이 아니라, 보다 도덕적인 이상적 교육경험의 실천적 밑바탕을 제공했으며, 또한 ‘근대성’의 새로운 미적 패러다임을 보여준 적지 않은 주요한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의 공통된 교육적 배

27) <J. Godwin, The Theosophical Enlightenment> 참조할 것.

28) Froebel, The Education of Man, p.6.

29) Ibid., pp.41-45.

30) Froebel, Autobiography, p.113.

31) Froebel, The Education of Man, p.41-45.

32) Froebel, Education of Man, p.288.

33) Froebel, Autobiography, p.113.

경을 형성케 했다는 사실이다.

사실 L.설리반과 F.라이트 정도가 프리벨의 영향을 강하게 주장했던 사람들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³⁴⁾ 그 밖에도 20세기 전환기의 유럽의 건축가들을 포함하는 많은 '아방가르드' 예술가들, 예를 들어 피카소와 브라크와 같은 입체파 화가들, 그리고 칸딘스키를 포함한 독일 바우하우스의 이텐, 클레, 알베르스는 물론, 몬드리안을 포함한 데스틸의 반 뒤스부르크와 리트벨트, 로버트 반트 호프, 그리고 절대주의 예술이 나타난 러시아에 이르기까지 프리벨 교육은 광범위하게 퍼져있었다는 사실은³⁵⁾ 그 영향이 근대예술의 형성에 프리벨의 교육적 영향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반증하는 것이고, 이러한 그의 업적이 20세기에 이르기까지 듀이의 교육적 방법에서, 그리고 '진보주의' 교육운동에 까지 영향을 주었다는³⁶⁾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2-3. 지적 종합으로서의 보편사상

후기 낭만주의를 뒤로하고 19세기말로 접어들면서, 즉 근대로 나아가기 위한 커다란 진보에서 독일관념론과 낭만주의사상, 그리고 앞에서 고찰한 비교주의 신학사상과 더불어 동양을 포함하는 세계의 모든 사상적 유산들이 더 폭넓게 인식되어 서구사회로 밀려들어 왔다. 결국 이러한 상황은 초월주의(Transcendentalism)

34) 이에 관해 설리반의 저서, <Kindergarten Chats and Other Writings>과 <Autobiography of an Idea>를 참조할 것. 그리고 프리벨의 사상과 라이트의 사상과 관련하여, <오장환, '유기적' 건축사상의 철학적 배경의 근원과 그 영향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01.6.>를 참조할 것.

35) 이에 관해서는 <Normann Brosterman, Inventing Kindergarten>와 오장환, 근대예술의 '순수성' 탐구와 프리벨 교육의 영향에 관한 연구(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논문집, 2008.6.)를 참조할 것.

36) 낭만주의 자연철학, 예술철학에서 비롯된 프리벨의 이상주의 교육사상이 진보주의 교육운동으로서의 근대 예술-교육 사상에 영향을 준 것에 대해, <A. Efland, 박정예, 예술교육의 역사(2000)>를 참조할 것.

와 신지학(Theosophy)협회와 같은 단체가 만들어지는 배경이 되었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19세기 중반에 이르러 에머슨과 소로우로 대표되는, 동서양 사상의 주목할 만하고 영향력 있는 결합이 최초이자 최고로 발전하기 시작했다는³⁷⁾ 사실이다. 특히 초월론의 경우, 1830년 무렵부터 셸링, 헤겔 등의 독일 관념론에 대한 일반 대중의 관심은 콜리지와 셸링의 철학에 정통한 진정한 선험론자였던 코진의 책을 통해 고조되기 시작했다.

당시 뉴잉글랜드 지방은 외국의 사상가들의 사상이 가장 쉽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땅이었는데, 왜냐하면 굳게 확립된 사상이 없었고, 따라서 그 지역 사람들 또한 그러한 사상들을 즉각 실생활에 적용시키는데 아주 열심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다양한 외국의 사상들이 그 땅에 수입되어 시험되었음은 당연한 것이었다. 즉 플라톤, 플로티노스, 야코비, 피히테, 슐라이어마허, 헤르더, 칼라일, 위즈워스, 공자, 고대 힌두의 철학자들, 불교도들, 유대인과 그리스의 성서 저자들, 캄피스, 파스칼, 그리고 스베덴보리³⁸⁾ 등 동양과 서양을 가리지 않은 다양한 사상의 글들이 그 땅에 들어오게 되었다.³⁹⁾

우주의 본질적 통합성과 정신의 궁극적인

37) Ibid., p.84. 사실, 18세기 미국은 동양에 관심을 갖지 않았으나, 당시 켈커타의 대법관이자 또한 신지학(theosopher)이었던 W. Jones경(1746-1794)의 저술에 자극받아 학문적이고 대중적인 관심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는 문헌학과 신화학의 변화에 주목하여 '그리스, 이탈리아, 인도의 신들에 대하여(On the gods of Greece, Italy, and India)'라는 책을 저술하였다. 그리고 존스와 그의 동료들은 지금까지 동양의 철학과 종교가 단지 단절된 기록과 여행자의 이야기에 의해서만 알려졌지만, 존스와 그의 동료들은 그것들이 앞으로는 보다 적절한 학문적 방식으로 기술되어질 것을 확신했다. <J. Godwin, op. cit., pp.16-18.>

38) Swedenborg(1688-1772)는 '북방의 부처'라고 불리는 18세기 스웨덴의 신지학자이자 영성신학자로 그의 교리를 따르는 기독교 분파가 있다. 그에 관해서는, <Suzuki, Swedenborg: Buddha of the North>, <Trobridge, Swedenborg: Life and Teaching>를 참조할 것.

39) S. Andô, Zen and American Transcendentalism, pp.60-61.

본성에 관심을 가졌던 에머슨과 소로우가 이끈 초월론 사상은 지극한 정신주의로, 한마디로 성서를 초월하려고 한 것이었다. 따라서 그들은 전(全)세계의 종교적 경험들을 호의적 받아들였는데, 사실 이러한 초월론 사상은 유럽 낭만주의 운동의 발전된 형태로, 특히 괴테, 워즈워스, 콜리지, 칼라일, 그리고 신플라톤주의와 신비적 전통에 의해 고취된 낭만주의와 강한 연속성을 띠고 있었다. 예를 들어, 에머슨 사상의 핵심관념은, 신플라톤주의에서 말하는 바처럼, 자연의 모든 것에 침투하고 활기를 불어넣으며 영성을 부여하는 ‘세계영혼’(World Soul)의 관념, 혹은 범신론적 보편정신인 ‘대신령’(Over-Soul)의 관념인데, 그는 이러한 개념을 통해 신성과 인간성, 그리고 영혼과 물질의 구분을 초월할 수 있는 통합적 철학을 건설하고자 했다.

달리 말하면, 이러한 초월론 사상은 정통 기독교나 특정한 종파와 결합하지 않았고, 그 반대로 종파의 경계선을 초월한 진실을 표현하는 가치를 추구한 것이었다. 즉 에머슨은 “모든 특수한 인간존재들은 ‘대신령’ 속에 포함되고 그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된다. 인간 안에는 보편적 아름다움이 있고 현명한 침묵이 있으며 전체의 영혼, ‘영원한 일자(the eternal ONE)’가 있다.”라고⁴⁰⁾ 했다. 에머슨의 대신령은 (그림1左)과 같이 나타내어지는데, 흥미롭게도 이러한 모양은 F. 라이트의 조상, 드루이드(the Druid)족의 상징(그림1中)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징은 ‘세상에 맞선 진리(Truth Against the World)’를 나타내는 것으로, 태양

광선이 비추는 것을, 그리고 자유정신(liberal spirit)의 현시라는 의미로서,⁴¹⁾ 여기서도 주목할 것은, 초월론을 따랐던 라이트와 더불어 단일론(Unitarianism)의 종교를 가졌던 그의 조상, 드루이드 족은 서양에서의 비교(秘敎)신앙의 소유자들인 신지자들이었다는⁴²⁾ 사실이다.



<그림 1> 상징들(대신령, 드루이족, 신지학협회)

사실, 이러한 새로운 종교사상적 운동들은 자유정신의 초기 빅토리안 시대로부터 유발되어진 것이라 할 수 있는데,⁴³⁾ 이러한 경향들은 당시의 자유종교협회(Free Religious Association)⁴⁴⁾와 같은 단체들이 생겨나는 배경이 되었다. 실제 신지(神智, Theosophy)⁴⁵⁾라는 말은 신플라톤주의자와 영지주의적 전통들과의 연계를 강조하기 위해 채택된 단어였는데, 한마디로, 이 용어가 표방하는 것은 바로 모든 종교적 전통들에 내재하는 고대의 보편적 진리를 추구라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비록 정교하게 다듬어지지 않았지만, <베일을 벗은 이시스(Isis Unveiled, 1877)>와 <비밀교의(The Secret Doctrine, 1888)> 등에서 알 수 있는 신지학의 메시지는 근본적으로 이러한 범신론적 ‘보편주의’ 사상의 부흥이었다.⁴⁶⁾

41) Wright, Truth Against the World, p.8.

42) J. Godwin, op. cit., pp.81-85. 참조할 것.

43) Ibid., p.236.

44) A. Versluis, op. cit., pp.202-227. 1867년 설립된 이 단체의 확산은 진보적 퀘이커교도(Quakers), 자유 유대교도(Jews), 급진적 단일론자, 보편주의자들, 불가지론자(Agnostics), 유심론자(Spiritualists), 과학적 유신론자(Theists)들과 연결되어 이루어진다.

45) 앞에서 언급했듯이, ‘신과 신성한 모든 것들과 관련된 지혜’라는 의미의 ‘신지’이라는 용어는 19세기 후반 ‘신지학’ 협회와 운동이 기초하기 훨씬 이전부터 하나의 철학적 의미로 사용되어졌다. <A. Rosmini, Theosophy, p.vii.>

40) J. Clarke, op. cit., pp.85-86.에서 재인용. 이러한 에머슨의 사상은 서구의 신플라톤주의적 전통으로서 의미를 부여받기도 하였지만, 에머슨과 같은 초월론자들은 유럽 낭만주의와 마찬가지로 동양에 몰입하였고, 바로 동양 사상에서 영감을 얻었다. <Lin Yu Tang, op. cit., pp.13-14.>를 참조할 것. 사실, 역사적으로 초월론은 그 이전에 일어난 것으로, 동양의 종교사상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A. Versluis, American Transcendentalism and Asian Religions(1993)>을 참조할 것.

즉, 그들이 목표로 하는 보편적 철학이란, 신지학협회의 로고(그림1右)에서 보이는 '진리보다 더 높은 종교는 없다'라는 문구처럼 당시 등장했던 다양한 '보편적 지혜(universal wisdom)' 운동들의 하나였으며,⁴⁷⁾ 이의 실천을 위한 사상적 구조 틀을 제공한 동양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⁴⁸⁾ 사실이다. 비록, 일시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신지학의 동양 사상에 대한 부정확성을 떠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모든 활동들이 이후, <물질과 기억, Matiere et Memoire(1896)>, <창조적 진화, L'evolution creatrice(1907)>를 저술하여 커다란 영향력을 미친 H. 베르그송과 같이, 서구로 하여금 진리에 이르는 다양한 길을 탐색하는 개방적 태도로 이끌었다는⁴⁹⁾ 사실이다.

2-4. '생성'의 보편사상과 근대예술

베르그송과 그의 제자인 에두아르 르 로이(Edouard Le Roy)는 주장하기를, "만물은 사실상 생성 중에 있다. 만물은 진화한다. 변화는 있지만, 변화하는 사물은 없다. 운동은 움직이는 대상(a mobile)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실재하는 것은 순수한 생성(becoming)이다"라고 했다. 또한 마리탱도, "베르그송의 철학에서 새로운 것이란 헤라클레이토스가 말한 순수한 생성(becoming)이다"라고⁵⁰⁾ 설명했는데, 사실, 이러한 영향들을 당시 미국과 유럽에서 건축가를 포함하는 예술가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예를 들어, 19세기말 인상주의에 이르러

거 본질로서 이해되었던 형태는 해체되는데, 즉 이러한 표현의 변화는 주지하듯이, '존재(being)'에서 '생성(becoming)'으로, 그리고 '존재'에서 '시간'으로 재현의 대상이 바뀐 것이었다. 한마디로, 인상주의 회화에서 개체들을 타자들과 구분해주는 윤곽선은 흐려지고, 따라서 공간은 흐름이 된다. 결국, 그래서 흐름은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고 시간이라는 절대적 존재에 굴복하게 된다. 즉 거기에서는 차이들의 지속적인 도래 즉 생성이 지배하게 된다.⁵¹⁾

여기서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철학적 변화 속에서 시각예술의 거대한 변화의 한가운데 있었던, 즉 주지하듯이 화가로서의 몬드리안과 칸딘스키가 아니라 건축분야를 포괄하는 근대의 대표적 아방가르드 예술집단의 핵심인물로서 절대주의의 말레비치, 데 스틸의 몬드리안, 그리고 바우하우스의 칸딘스키가 하나같이 신지학에 심취했던 사람들이었다는⁵²⁾ 사실에 주목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칸딘스키는 "이와 같은 계기에서 가장 중요한 정신운동 중의 하나가 비롯했는데, 블라바츠키에 의하면 신지학의 영원한 진리라는 의미와 유사하다. 좌우간 위대한 정신적 운동은 그대로 남아 있으며, 이 운동은 정신적 환경에서 강력한 원동력이 된다."고⁵³⁾ 했다.

이러한 신지학 사상은 당시의 많은 건축가들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었는데, 앞에서 논의한 R.슈타이너와 더불어 유럽에 F.라이트의 작품을 소개했던 P.베를라헤,⁵⁴⁾ 로베릭스 등을

46) J. Clarke, op. cit., pp.89-90, 비의(秘儀)주의와 관련된 또 다른 영향력 있는 인물은 건축가였고, 인지학(Anthroposophie)을 창시했던 루돌프 슈타이너이다. 그는 불교와 기독교의 정신을 충실하게 결합하려고 했다. <Ibid., p.136.>에서 재인용.

47) J. Clarke, The Tao of the West : Western Transformations of Taoist Thought, p.47.

48) J. Clarke, Oriental Enlightenment, p.89.

49) Ibid., p.109.

50) F. Baumer, op. cit., pp.629-630.

51) 이정우, op. cit., pp.83-89. 시간을 넘어 존재하는 본질이 와해되었을 때 시간은 가장 궁극적인 실체가 되는데, 이것이 베르그송 철학의 핵심이다.

52) 칸딘스키의 미학은 표면적으로는 말레비치와 몬드리안의 것과 상이해 보이나 상당히 유사한 기반위에 이루어졌다. 세 사람 모두 신지학에 심취했으며, 칸딘스키는 말레비치와 마찬가지로 미술을 형태와 색채를 통한 감각의 소통을 보았다. <김광우, 칸딘스키와 클레의 추상미술, p.19> 참조할 것.

53) Kandinsky, 권영필譯, 예술에서의 정신적인 것에 관하여, pp.39-40.

비슷한 많은 암스테르담 학파를 중심으로 한 건축가들, 그리고 미국의 프레리 학파의 일원이었던 M.마호니⁵⁵⁾와 C.브래그돈⁵⁶⁾과 같은 미국 건축가들과 같이 실제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건축가들이 신지학 사상에 관련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영향은 지금까지도 여러 건축가들을 통해⁵⁷⁾ 이어져오고 있다. 예를 들어, 몬드리안은 주장하기를, “새로운 조형적 표현은 그것이 보편자의 직접적인 표현이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그 표현이 개별자(자연적인 구체적인 것들)를 배제하기 때문에 추상이라고 불리어 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추상적-실체(abstract-real)의 표현에서, 인간은 자연물에 대조되는 것을 그린다. 자연에 반대함으로써 인간은 그것을 알기 위해 배울 수 있고, 그리고 정신에 대한 지식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방법에서 예술은 진실로 종교적인 것이 된다.”라고⁵⁸⁾ 했다.

54) P. Berlage에 관해서는 I. Whyte, Hendrik Petrus Berlage: Thoughts on Style (1996)을 참조할 것.

55) 신지학협회와 M. Mahony와 관련해서, A. Watson ed., Beyond Architecture: Marion Mahony and Walter B. Griffin (1998)을 참조할 것.

56) C. Bragdon(1866-1946)은 건물의 구조에 하이퍼큐브(hypercube)라는 자신의 디자인을 건물의 구조 속에 합쳤는데, 이후 건축이론에 관한 여러 저서들, 예를 들어, The Beautiful Necessity(1910), Architecture and Democracy(1918), 그리고 The Frozen Fountain(1938) 속에서 건축디자인에서의 신지학적 접근을 옹호했다. 더욱이 그는 동양의 종교를 포함하는 정신적 주제에 관한 저서들, 즉 New Lamps for Old(1925), The Eternal Poles(1931), Four Dimensional Vistas(1930), and An Introduction to Yoga(1933)과 그의 자서전 More Lives Than One(1938) 등에서 환생에 관한 믿음을 나타냈다.

57) 건축과의 관련성은 신지학보다는 슈타이너가 창시한 인지학이 더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예를 들어, 헝가리의 I. Makovecz, 독일의 H. Scharoun과 J. Eble, 스웨덴의 E. Asmussen, 일본의 K. Imai, 네덜란드의 T. Rau, A. Alberts, 그리고 M. Huut, 영국의 C. Day와 Camphill Architects, 미국의 Thompson과 Rose, 캐나다의 D. Bowman,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의 W. Griffin과 G. Burgess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58) R. Padovan, Towards Universality, pp.5-6. 라이트는, “그것들이 유기적인 건축에 있어서 그런 것처럼, 건축, 철학, 그리고 종교는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비록 신지학협회에의 가입하는 등의 직접적인 활동은 없었지만, ‘북방의 부처’라고 불렸던 스베덴보리의 종교 사상을 믿었던, L. 설리반과 같이 당시의 많은 사람들 또한 당시 초월론 내지 신지학과 같이 그러한 사상집단에서 표방하는 것과 같은 신념을 소유하고 그에 대한 신념을 드러냈고 있었다. 사실 스베덴보리는 중요한 신지자로,⁵⁹⁾ 한마디로 L.설리반에게 디자인의 관념적 구조의 기초를 제공한 것은 신비주의자이며, 철학자였던 스베덴보리였다. 더욱이 흥미로운 사실은 설리반 이외에도, 시카고학파의 대표적 건축가이자, 외견상 설리반과 갈등관계에 있었던, D.번햄, 그리고 J.루트와 J.에델만 또한 이 종파에 속해있었다.⁶⁰⁾ 예를 들어, 설리반은 설명하기를, “유한한 하나(only one)가 다수로 펼쳐진다. 그리고 그 일자(一者, the One)는 그 자유정신(free spirit)의 고양된 독특한 힘들과 그 덕행의 힘들의 거대한 혼합체가 된다.”⁶¹⁾ 했는데, 이것은 바로 지금까지 앞에서 고찰된 사상과 공통된 것임을 알 수 있다.

3. 결론

앞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보편사상, 혹은 보편철학, 내지 보편종교로 불리

<Genius and the Mobocracy, p.25.> “개체성의 감각을 우주의 유기적 통일성, 즉 인류 힘의 진정한 근원이고, 모든 것에 스며있는 ‘생성의 상태(state-of-becoming)’에 대한 반영으로서 설교했다! 우리 자신의 민주주의적 이상은 근본적으로 어느 정도 그 같은 통일로서 여겨질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말하자면, 민주주의는 인간 개체성의 자유로운 성장, 즉 정신의 통일 내에서 더불어 기능에 자유로운 인간으로서 이해되는데, 그러므로 천성적으로 형식주의에 반대하는 것이며, 그리고 규정화하는 것에도 반대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Wright, The Living City, p.48.>

59) J. Godwin, op. cit., p.338. 참조.

60) N. Menocal, Architecture as Nature: The Transcendentalist Idea of Louis Sullivan, pp.24-25.

61) L. Sullivan, Autobiography of an Idea, p.271.

는 근대로 향한 서구의 지성사적 흐름에서 나타난 지적 융합은 실제 낭만주의 사상 그 훨씬 이전부터 역사적 오랜 과정을 통해 서구의 커다란 사상적 줄기를 이루는 것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즉 근대의 보편 이론(universal theories)이란 서양에서 존재(being)로서 신을 이해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범신론적 입장에서 신을 이해하는 것으로 변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우주의 단일한 전체성'에 관한 사유는, 비록 보편주의 사상의 근대의 역사적 발전적 전개에서, 그것들이 각기 독일의 자연철학, 미국의 초월론과 단일론, 그리고 유럽의 신지학과 같이 다양한 이름으로 출현하였지만, 근본적으로 서양에서 신플라톤주의와 같은 비교주의 내지 동양사상과의 연관성이 논의되는 신비주의와 같은 사상적 줄기를 이루는 것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상기의 고찰을 통해 얻어진 보다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사상이 궁극적으로 20세기 새로운 '근대성'의 표현으로 이끈 주요한 예술가들의 사상으로써 이어졌다는 것인데, 즉 '존재에서 생성으로' 일컬어지는 보편주의 사상은, 결국 데스틸과 바우하우스 예술가집단과 같이 서로 다른 아방가르드 예술가 집단들에게 근대미학의 공통된 목표를 향한 예술적 자각을 이루게 하는 공통된 사상적 기반을 제공하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범주에 들어오는 예술가들과 관련하여, 기존의 연구에서도 밝혀졌듯이, 당시 아방가르드 예술가집단의 주요한 예술가들이 공통된 교육적 배경으로 가지고 있었던 프뢰벨의 교육사상 또한 비메와 같은 신지자들을 통해 이미 보편주의 사상과 결부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통해, 프뢰벨의 교육이론과 학습방법의 광범위하게 확산과 수용을 통해 그 표현의 원리와 더불어 보편주의 사상이 근대성의 예술창출에 궁극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음도 파악할 수 있었다.

앞서 밝혔듯이 본 연구는 예술표현을 통한 고찰에 앞서 "철학에 대한 상당한 지식 없이 어떤 예술에 대한 진정한 이해란 없다."라는 입장에 공감하여, 근대 '보편주의' 철학사상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그 주요 내용에 대한 선행 연구이며, 따라서 앞서 논의한 사상과 관련하여 건축을 포함하는 예술작품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향후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참고문헌>

1. A. Rosmini, *Theosophy: The Problem of Ontology Being-as-One*, trans. by T. Watson, Rosmini House, 2007.
2. Versluis, *American Transcendentalism and Asian Religions*,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3. F. Froebel, *Autobiography of Friedrich Froebel*, Trans. by E. Michaelis, Swan Sonnenschein & Co., 1891.
4. F. Froebel, *The Education of Man*, trans. and annotated by W. Harris, Appleton and Company, 1887.
5. J. Clarke, *Oriental Enlightenment: The Encounter between Asian and Western Thought*, Routledge, 1997.
6. J. Godwin, *Theosophical Enlightenment*, State Univ. of New York Press, 1994.
7. L. Sullivan, *Autobiography of an Idea*, Dover Publications, 1956.
8. N. Menocal, *Architecture as Nature: The Transcendentalist Idea of Louis Sullivan*, Univ. of Wisconsin Press, 1981.
9. R. Padovan, *Towards Universality*, Routledge, 2002.

A Study on the Modern ‘Universal Philosophy’ Idea–Presentation of ‘Avant–garde’ Art Groups at the Turn of the 20th’s Century

– On the Progress of the Philosophies, ‘Universalism’ as a
Intellectual Synthesis toward Awakening for Modern Art –

OH, Zhang Huan

(Assistant Prof.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ultimately subjected to the Orientalism, even though this deals with some positive effects in the realm of art and architecture as the scope of study, because through which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different cultures will be discussed. That is to say, this research focused not only on how the presentation of ‘avant–garde’ visual art, which is explained as formal ‘purity’ and ‘abstraction’ as the characteristics of modern arts, could be made in the transition to the 20th’s World, but also on what is the role and meaning of Eastern thoughts, which is popular in that time, for the new philosophical background of the artistic revolution.

As a result, this study found that a lot of ‘avant–garde’ architects such as F. L. Wright, M. Mahony in Prairie School and L. Sullivan, D. Burnham, J. Root in Chicago School, and Lauweriks, H. P. Berlage who introduced Wright’s works into the Europe, had possessed the ‘Universal Philosophy’ including Unitarianism, Transcendentalism, Deism, and Theosophy which are all influenced by Oriental religions and thoughts through historic western philosophers, although it is generally well-known that W. Kandinsky and P. Mondrian were belong to that.

Furthermore, they gave attention to the Oriental religions and thoughts in that time, eventually made a historical progressive process of unification of thoughts between East and West. In a word, the new universalism was the philosophical background that made the artist’s idea and presentation on ‘from Being into Becoming’.

Keywords: Transcendentalism, Theosophy, Universal Philosophy, Artistic Awakening.
